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데즐링 랑데부 레드

올해 우아함의 정수를 담은 랑데부 컬렉션이 정밀함의 예술이라는 테마의 일부로 새롭게 재탄생하였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데즐링 랑데부는 까다로운 주얼리 제작 기법인 프롱 세팅 과정을 통해 뛰어난 장인 정신과 창의적 열정이 이끈 정밀성에 대한 경의를 표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SIHH 에서 공개한 데즐링 랑데부 나잇 & 데이(화이트 골드 또는 핑크 골드 버전)와 데즐링 랑데부 문(화이트 골드)을 비롯하여 제 22 회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서는 새로운 데즐링 랑데부 레드를 선보였습니다.

레드는 고귀함과 에너지, 열정, 지혜 그리고 부를 상징하는 컬러이며, 외향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당당한 여성을 위한 컬러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데즐링 랑데부 레드에 핑크 골드, 화이트 마더오브펠,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광채로 SIFF(상하이 국제 영화제)를 기념하는 루비를 세팅하고,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나잇 & 데이 기능을 선보입니다.

주얼리 위치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데즐링 랑데부 레드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랑 메종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시계 케이스를 따라 촘촘히 세팅된 강렬한 루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숙련된 장인들은 가장 까다로운 주얼리 기술 중 하나인 프롱 세팅을 선택하였고, 극도의 정밀함으로 36 개의 루비를 초소형 골드 스파이크를 이용하여 고정시켰습니다. 또한, 마스터 보석 세팅 장인들이 수 시간 동안 스톤 하나하나를 수작업으로 살짝 솟아 있듯이 배치하여 메탈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각도에서 빛이 스톤을 통과하도록 작업합니다. 따라서 루비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크림슨 레드 컬러의 빛을 강렬하게 쏟아냅니다.



유백색 마더오브펄 다이얼은 마치 달빛처럼 영롱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함께 나잇 & 데이 디스플레이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6시 방향의 오프닝을 통해 드러나는 금빛 초승달은 끊임없는 시간의 춤사위 속에서 밤이 아침이 되며 눈부신 태양으로 바뀝니다.

베젤을 장식한 72 개의 다이아몬드는 내부 다이얼에 자리잡은 47 개의 소형 다이아몬드 링과 아름답게 공명합니다. 원을 이루는 다이아몬드 사이로 핑크 골드의 플로럴 숫자가 무지갯빛 화이트 다이얼과 따사로운 대조를 이루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12 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러그와 다이아몬드 장식의 크라운을 매치하여 눈부신 광채를 이끌어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다이얼이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내부 메커니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개발과 제작의 모든 과정을 통해 탄생한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898B/1 가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화려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타임피스는 반짝이는 루비 레드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출시되며, 핑크 골드 핀 버클을 사용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데즐링 랑데부 레드

크기: 36mm

두께: 9.80mm

칼리버: 898B/1- 오토매틱

케이스: 핑크 골드

방수: 5 바(bar)

기능: 시, 분, 낮/밤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38 시간

다이얼: 마더오브펄

젬스톤: 132 개의 다이아몬드 - 0.75 캐럿 및 36 개의 루비 - 3.24 캐럿

케이스백: 오픈

제품 번호: Q343257J

8 피스 한정 제작

부티크 독점 판매 모델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초기부터 정밀성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며 정교함과 미학적 노하우를 통해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선보였습니다. 1833 년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파인 워치메이킹 산업을 선도하는 컬렉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앳모스 등 그랑 메종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전례 없는 타임피스들 통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줍니다.

www.jaeger-lecoultre.com